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9 Vol. 11



커버스토리

대학씨름 최강자는 바로 나!
전주대 씨름부 서남근

스포츠라이트

대한민국 사격계에 도전장을 내민다!
상명대학교 사격부

멘토를 만나다

SPOTV 김명정 캐스터



제 16회 전국 남·여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간충북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남자대학부는 한림대학교가 대구과학대를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대학부는 서해대학교가 정상에 올랐다. 대중들에게 생소한 세팍타크로지만 조금씩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진/대한세팍타크로협회



*세팍타크로 :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땅에 떨어트리거나 팔·손등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볼을 차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경기.
최근 한국 세팍타크로 선수들은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하며 인정받고 있다.

Contents

04



커버스토리
대학씨름 최강자는
바로 나!
전주대 씨름부 서남근

09



스포트라이트
대한민국 사격계에
도전장을 내민다!
상명대학교 사격부

11



포토타임
2015 KCC 프로-아마농구 최강전 이모저모
대학배구의 여름방학 마무리는 땅끝 해남에서!
제49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전 현장

대학리그소식	2015 카페베네 U리그 후반기 PREVIEW	15
	대학농구 POWER 랭킹! (방학 리뷰&하반기 프리뷰)	17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상명대학교 안정훈	18
	2015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그 왕관의 주인공은?	19
페이스메이커	“한가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탁구”	21
동아리 열전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성균관대학교 기우회 묘수	23
대학스포츠강독	나의 '롤 모델', 당신은 누구십니까	25
멘토를 만나다	‘스포츠의 순수함과 열정을 담다’ SPOTV 김명정 캐스터	27
레전드매치	두 학교 간의 치열한 명승부	29
KUSF NEWS		31
취재 후일담		32

‘전통씨름.’ 씨름만큼 전통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스포츠가 있을까. 씨름은 오랜 시간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형태를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가 풍속화로 그릴 정도로 대중적으로 즐겨온 스포츠다. 이후 프로씨름이 생겨나면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지만 침체기를 겪은 뒤 현재는 부흥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지금도 명절연휴가 되면 어김없이 TV 중계를 통해 씨름을 접할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대학씨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주대학교의 서남근이다. 모래판 위에서는 패기와 당당한 풍채로 누구한테도 질 것 같지 않은 카리스마를 뽐어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한 듯 수줍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대학씨름 최강자는 바로 나!

전주대씨름부 서남근



전주토박이, 전주대의 이름을 알리다

서남근은 인천 태생이지만 곧바로 전주로 이사를 왔다. 그는 전주 풍남중-전주 신흥고를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1년 전주토박이인 셈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를 찾아온 스카우트의 권유로 씨름을 시작하게 됐다. 씨름을 시작하기 전에는 남들보다 먹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어린 아이였다. “제 덩치가 또래들보다 큰 편이었는데 스카우트가 저를 눈여겨보고 저한테 선수를 권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선수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의 이름 뜻은 사내 남(男), 뿌리 근

(根). 태어날 때부터 장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실력은 탁월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출전했던 소년체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중·고등학생 시절 수많은 우승을 일궈냈다. 서남근 자신도 “슬럼프는 없었어요.”라고 말할 만큼 탄탄대로를 걸었다.

대학에 들어오자 그의 우승가도는 더욱 가속페달을 밟았다. 지난해엔 입학 이후 두 번째 대회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4년을 4관왕으로 마무리했던 서남근의 기세는 올해 파죽지세다.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이하 전국시도대항)에서 우승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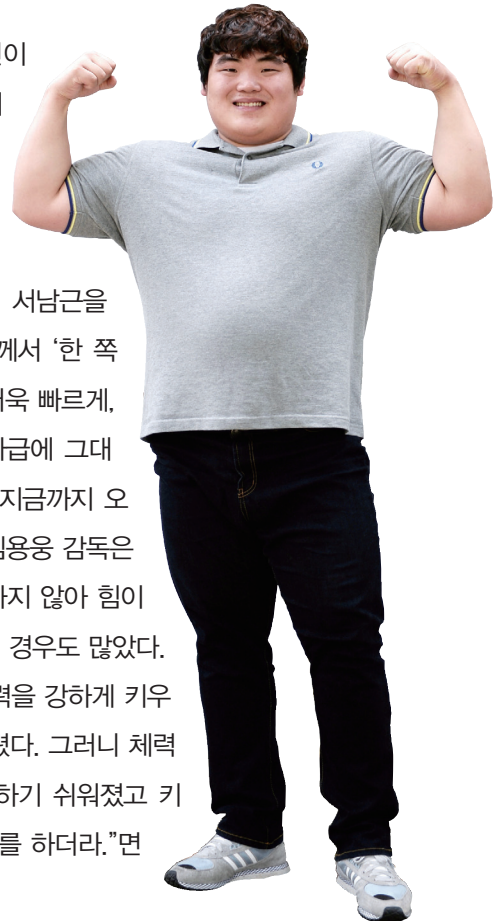
제52회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 장사급1위

벌써 4관왕을 달성했다. 지금까지 출전한 13개의 대회 중 8개 대회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무려 62%의 우승확률을 자랑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서남근은 올해 남은 3개의 정규대회에서 우승을 더해 6~7관왕까지 바라보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 2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도 맛보았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국체전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씨름은 국제대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갈 순 없지만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서 우승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주대 씨름부를 넘어 전북씨름을 대표하는 간판선수라 할 만하다. 전주대 선배들인 명절대회에서만 4번을 우승하며 ‘명절 장사’로 불리는 장성복(양평군청)과 대학 시절 여러 번 우승하면서 전주대를 이끌었던 박한샘(수원시청)의 뒤를 잇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서남근이다.

通(통)하다! 키·체중의 열세를 극복한 씨름

서남근의 키와 몸무게는 182cm, 135kg이다. 그의 신체조건은 150kg까지 허용되는 장사급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몸무게가 상대선수보다 적게 나가면 힘에서 밀리게 된다. 올해 대통령기 대회 임진원(경기대)과의 결승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해 계체에서 임진원보다 몸무게가 2kg 덜 나가 우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계체까지 가는 상황을 바랄 수는 없다. 키가 작으면 더 불리하다. 몸무게만큼 씨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키가 큰 씨름선수는 살바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다리기술을 걸기 쉽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 덩치이지만 장사급에서 서남근은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체급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서남근의 몸무게는 120kg대 후반으로 이도 저도 아닌 몸무게였다. “대학 첫 대회에서 예선 탈락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체조건이 좋지 못해서 체급을 한 체급 내리려고 했어요.” 흔들리던 서남근을 붙잡은 건 전주대 김용웅 감독이었다. “감독님께서 ‘한 쪽이 불리하면 다른 쪽으로 앞서가면 된다.’면서 더욱 빠르게, 더욱 힘 있는 씨름을 해보자고 말씀하셔서 장사급에 그대로 있게 됐어요. 이후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김용웅 감독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힘이 부족했다. 한 체급 아래인 역사급 선수한테 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선 체력 후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력을 강하게 키우고 근력 운동을 하는 동시에 체중을 7~8kg 늘렸다. 그러니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잔기술을 구사하기 쉬워졌고 키가 큰 선수들이나 실업 선수들하고도 곧잘 경기를 하더라.”면서 제자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해했다.



서남근의 롤모델은 정경진이다. 정경진은 2014 천하장사 출신으로 통산 6번의 장사타이틀을 차지한 백두급(150kg 이하)의 대표적인 선수다. 한라급(110kg 이하)에서 백두급으로 전향한 정경진은 신체조건을 이용하는 씨름보다는 기술 씨름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씨름 스타일이 저와 비슷하고 천하장사도 하셔서 그런지 경기를 할 때 여유와 노련미가 좋습니다. 정경진 선수와는 붙어서 이길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아야죠.” 서남근과 마찬가지로 몸무게에 대한 고민이 많다가 백두급에 정착한 정경진은 좋은 참고대상이다. 끊임없는 훈련과 롤모델을 보면서 노력하는 서남근이지만 승패를 결정하는 의외의 요인도 귀땀해졌다. “언제부터인가 파란색 선수복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입을 때마다 경기에 이기게 되니까 계속해서 파란색 선수복을 찾게 됐어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러네요.”라며 씩스럽게 말을 꺼냈다.

씨름과 씨름하다

자신의 체급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남근이지만 그가 넘어서야 할 라이벌들과 과제는 많다. 우승에 실패했던 5개 대회에서 여러 명이 아닌 두 선수에게 저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임진원과 최인호(경남대)다. 각각 두 번과 세 번씩 이겨 서남근을 가로막았다. 193cm의 큰 키가 돋보이는 임진원은 2014년 장사급 랭킹 1위에 올랐던 강자다. 그는 서남근과 솔하게 모래판에서 만나 자웅을 겨뤘었다. 올해 서남근은 결승전에서 임진원을 세 번 만나 다 이겼지만 여전히 까다롭다. 최인호와는 고등학생 시절 얹치락뒤치락 했었지만 대학에 올라와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인호 선수는 힘이 안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항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최근 대회였던 전국시도대항 결승에서 만났던 김찬영(동아대)도 이기기 어려운 선수로 꼽았다. “김찬영 선수의 키가 198cm인데다 힘도 세서 상대하기 힘들어요. 지난 결승에서 제가 공격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수비만 하다가 얼떨떨하게 이긴 경기라서 결과는 이겼지만 내용은 진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변칙기술에 능해져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서남근의 주특기 기술은 들배지기와 호미걸이다. 들배지기는 상대를 끌어당겨 배 높이까지 끌어당긴 뒤 자신의 몸을 비틀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호미걸이는 상대방을 들어 올린 뒤 발을 호미 모양처럼 만들어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필자가 서남근의 기술을 체험한 결과 조금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과 빠른 민첩성으로 기술을 구사했다. 그는 두 기술로 수많은 상대들을 모래판에 넘어뜨리고 우승했다. 하지만 김용웅 감독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키가 크거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실업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칙기술도 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칙기술이란 유도나 레슬링처럼 살바를 놓고 경기를 임할 때 구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대학씨름의 최강자 자리에 올라있지만 씨름과 씨름할 날이 더 많은 ‘미완의 대기’다.

름(음)지에서 벗어나라 씨름이어

최근 씨름계는 변화를 계속 시도 중이다. 예전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이다. 부활의 신





호탄은 스폰서 체결이었다. 2012년부터 IBK 기업은행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씨름협회는 재밌는 씨름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제도를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장사급의 체중 제한을 들 수 있다. 선수들의 대형화를 막고 기술씨름 장려를 위해 2011년 무제한급에서 160kg으로 제한했고 이듬해 150kg으로 또 한 번 낮아졌다. 이외에도 연장전 도입과 경기장 규모 확대를 통해 관중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의 노력이 조금은 대중들에게 응답한 것일까. 2015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는 만원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남근은 이 대회에 출전해 살아나고 있는 씨름의 인기를 경험했다. “씨름의 인기는 중간인 거 같아요. 정규대회는 각 팀 학부모랑 선수들이 응원하는 경우가 많고 설날장사대회 때 관중이 가장 많았어요. 경기장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바뀌고 있는 씨름계의 추세에 발맞춰 서남근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관중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성격은 가장 큰 장점이다. 서남근은 2품(3위에 해당)에 올라 실업 선배들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4강에서 손명호(의성군청)를 만나 역전패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성적이었다. 타고난 ‘강심장’이다. 김용웅 감독은 “연습에서 100%의 기량을 보여주면 실전에서는 200%를 보여준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우승해서 이기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지 않는 담대함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것 같다.” 서남근 자신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관중이 많으면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긴장을 하게 되면 경기가 안 풀려서 시합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실업 선배들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난 후 자연스럽게 주먹을 불끈 쥐고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은 ‘겁 없는 신예’ 그 자체였다. 물론 세리머니 후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서남근은 과거 씨름계를 호령했던 이만기·강호동과 키가 같다. 두 선수는 수많은 천하장사 타이틀을 얻으면서 모래판을 휩쓸었던 주인공이었다. 그들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힘과 기술을 겸비한 씨름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보와 앞서 말한 문제점을 보완해 자신보다 키가 큰 선수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실업에서도 여러 차례 연출한다면 서남근이 씨름의 인기 회복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은 꿈은 아니다. 단지 두 선수와 키가 같아서가 아니다. 단, 그의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남근은 “지금 제가 하는 씨름을 만들어준 전주 신흥고 온형준 감독님과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요.”라며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겼다. “대학 졸업 전까지 백두 장사를 해보고 실업으로 진출하고 싶어요.”라는 서남근의 설날장사 대회 이후 두 번째 백두장사 도전은 다음달 25일부터 경북 상주에서 열리는 추석장사대회가 될 전망이다. 서남근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추석연휴 때 TV를 틀어보자. 그가 설날장사대회에서의 아쉬움을 털고 추석에는 꽃가마를 타길 바라본다.



대학씨름 최강자는
바로 나!

전주대씨름부 서남근



대한민국 사격계에 도전장을 내민다!

상명대학교 사격부



이제 창단 4년 차 새내기지만 대한민국 사격계에 돌풍을 몰고 온 팀이 있다. 바로 대학부 25m 화약권총 분야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명대학교 사격부다. 팀 전체 인원은 6명뿐이지만 그 개개인이 가진 역량만큼은 과연 압도적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제4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제31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등의 각종 대회를 석권했다. 대회마다 본인들의 신기록을 갱신함은 물론 순위권에 팀 전체가 나란히 이름을 올릴 정도니 25m 화약권총은 그들만의 무대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 해를 거듭하며 사격계의 유쾌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명대학교 사격부를 소개한다.

* * *

거침없이 탕 탕 탕!

상명대의 주 종목인 25m 화약권총은 쏘는 방식에 따라 속사와 스탠다드, 그리고 센터파이어의 세 종목으로 나뉜다. 그중 상명대 사격부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속사를 꼽았다. 올림픽 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속사 권총은 제일 빠른 4초, 6초, 8초 안에 5개의 표적지에 60발을 사격한다. 한편 스탠다드는 10초, 20초, 150초 안에 연속으로 한 표적에 사격하며 속사와 다른 탄환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센터파이어는 속사와 스탠다드를 적절히 섞은 것으로 경기 방식은 쉽지만 다른 종목보다 큰 32구경의 탄환을 사용해 총을 쏘는 난이도는 더 어려운 종목이다. 지난 봉황기 사격대회에서 전 종목 개인전, 단체전 우승을 휩쓸며 6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박정우는 “25m 화약권총은 여느 사격 종목과 다

르게 시간제한이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쏘야 하고 게임이 흘러가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라며 25m 화약권총의 매력을 소개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선수들 역시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때문에 시합에 나서기 전 저마다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곤 한다. 신준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차분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한편 이경원과 박정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경기에 더욱 집중한다. 훈련 역시 언제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속사권총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이경원은 “총을 쏘기 위한 자세연습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올바른 자세를 반복하면서 몸에 그 감을 익혀야 좋은 성

적도 나와요. 기분이 가장 중요해요.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와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세부터 잘못된 곳은 없는지 생각해보고요.”라며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5m 화약권총은 우리의 것, 그 이유 있는 자신감

상명대 사격부는 ‘선택’과 ‘집중’, 바로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팀이다. 10m, 50m를 제외한 화약권총 25m





상명대 신준호



상명대 박정우, 이경원



상명대 윤진원

선수들만으로 팀을 구성하게 된 상명대 사격부는 해당 부문에서 단연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팀이다. 이에 선수단 역시 “상명대학교 사격부는 25m 화약권총, 특히 속사를 가장 잘 쓰는 팀입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참가하는 대회마다 속사,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3개의 종목에서 주어지는 12개의 메달 중 11개를 차지하는 등 대회 대부분의 상을 쓸어 담는 그들이기에 당연한 자신감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다. 화려한 성적, 그리고 선수단의 그 이유 있는 자신감의 뒤엔 그들의 인내와 노력이 숨어있다. 특히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종목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선풍기 단 두 대를 틀어놓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 땀을 뻘뻘 흘리기 일쑤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총을 사용하는 종목이기에 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훈련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선수단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정희 감독이다. 전 감독은 “한창 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알아서 자제하고 제가 당부하는 것에 잘 따라와 주죠. 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요. 훈련에 학교 공부까지 병행하는 것이 힘들 텐데도 항상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라며 선수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상명대 전정희 감독

잘한다! 내 아들

선수들의 고된 훈련만큼이나 전정희 감독 역시 한 시도 몸을 쉬게 하는 법이 없다. 4년제 대학 사격부 첫 여성 사령탑인 전 감독은 훈련에서나 대회에서나 선수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다. 특히 선수들과의 소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선수들의 솔직

한 이야기를 들어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교육 철학이다. 전 감독은 “아이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많이 나눠요. 우선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 자신감을 주는 거죠. 기록이 좋지 않을 때는 빨리 잊고 트레닝 했을 때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중요해요.”라며 진솔한 대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한 대회에서도 속사,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세 종목에 참가하다 보니 첫 경기 기록이 좋지 않을 땐 다음 종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전 감독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조금 아쉬운 결과에 대해 야단을 치는 법도 없다. 대신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 왜 그랬어? 문제점이 뭐였어?”라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선수 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에 대한 감독의 조언을 전한다.

전 감독의 섬세하고 따스한 엄마 리더십은 선수들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그녀는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본인이 직접 지은 선수 개개인의 애칭을 부른다. 최근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했던 이경원에게는 ‘유니’,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는 박정우에게는 ‘올림픽 박’ 등 저마다 의미를 가진 별명을 붙여줬다.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녀를 선수들 역시 엄마보다 편하게 여긴다. 아픈 곳이 생기면 엄마보다 먼저 감독에게 연락을 할 정도니 말이다. 이에 전 감독은 “사격장에서만큼은 제가 엄마보다 더 편한 존재여야 해요.”라며 선수들에게 푸근한 엄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심을 담아 한발 한발

“엄마가 자식에게 뭘 바라고 하나요. 그저 조건 없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총을 쏘라는 것뿐이죠.” 선수들에게만큼은 그 어떤 지원과 애정도 아끼지 않는 전정희 감독이 선수단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순수함과 청렴함이다. 이는 그녀가 몸소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의 가르침이다. 단순히 사격이 좋아 총을 쏘기 시작한 그녀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총도 잘 맞아요. 총을 쏘면서 ‘난 이번에 좋은 기록을 내면 돈이 생겨.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어.’라는 계산을 하면 절대 완벽히 총을 쏠 수 없죠.”라며 선수들 역시도 진심을 담아 사격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 엄마에 그 아들이라 했던가. 전 감독의 바람대로 선수들은 모두 함께 그들만의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오면 서로를 다독이며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단체전에 출전해 혹여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내 툴툴 털어낸 후 다음 주자가 더욱 집중력을 높여 동료의 실수를 만회해내곤 한다. 박정우는 “팀 분위기만큼은 저희가 최고예요. 정말 친하고 장난도 많이 쳐요. 자유롭죠.”라며 상명대가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에는 끈끈한 팀 분위기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에 홀로 서 나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사격이지만 진심이 통하는 순간 그 무엇보다 단단히 하나가 되는 그들이다.

국내무대를 넘어 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 등 여러 국제무대를 밟으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는 상명대학교 사격부. 올림픽에 출전해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남긴 상명대 사격부의 힘찬 전진을 지켜봐도 좋다.



"태종이형! 저의 패스를 받아주세요!"
문태종 선수와 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박지훈!
내년에 있을 2016 KBL 드래프트가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2의 이호현으로 낙점된 중앙대 박지훈!
명실상부 대학농구 대표 얼짱! 파란색 이너웨어 (부끄부끄)

2015 KCC
프로-아마농구
최강전
이모저모



글 · 사진/한태건(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중앙대의 가드 듀오
박지훈-박재한!
마치 NBA 골든 스테이트의
'스플레쉬 듀오'
스테판 커리-클레이 탐슨
콤비처럼 중앙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2015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에서 가장 먼저 우승의 축포를 쏘아 올린 목포과학대학교! 한번 분위기를 타면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녀들. 결국 일을 냈습니다!



대학배구의 떠오르는 샛별, 중부대학교는 예선 4연승으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부대는 U23 대회에 4명의 선수가 차출되며 전력에 큰 변화를 맞았지만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뚝뚝 뚫었습니다. 함께 4강에 진출한 타 팀과 비교해 신장 열세를 보이는 중부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한편 아쉽게 우승을 놓친 우석대학교는 의도치 않은 부상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쁜 외모와 파이팅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 상큼발랄 대학배구의 비타민들!



남자 1부대 예선리그의 종료와 동시에 해남을 찾은 목포대학교! 목포대는 지난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 1부대라 칭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우승한 바 있는데요. 예선 첫날에도 동아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승을 향한 간절한 의지를 지닌 목포대학교, 이번 대회에서도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팀인 인하대까지 꺾고 예선 4연승으로 조 1위 준결승에 진출한 성균관대학교! 현재 주전 세터 황택의가 U23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노련미를 가진 이원중 세터가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추계의 강자 성균관대학교가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Volleyball



결승전답게 시구 행사가 열렸다. 대한야구협회 홍보대사인 배우 박지아가 시구 연습을 하고 있다. 그녀의 시구 실력은 야구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의 수준급이었다.



결승전을 포함해 총 5번의 게임을 치른 성균관대. 그중 무려 5경기에 출전해 5승을 챙긴 성균관대 투수 윤중현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등판해 마운드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주며 성균관대의 우승을 견인한 윤중현은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제49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전 현장



원광대 선발투수 김성재의 역투장면. 대회 내내 좋은 투구를 보여주던 그다. 이날도 좋은 컨디션으로 성균관대 타자들을 공공 뭉였지만 타선이 터져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성재는 대회 감투상을 수상했다. 그는 얼마 전 열린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롯데에 지명을 받았다.



성균관대의 마지막 득점 순간. 7회까지도 두 팀은 팽팽한 0대 0의 스코어를 이어갔다. 이를 깬 것은 성균관대! 김민환-김용의 연속 안타 후 최재혁의 결승타로 성균관대는 2점을 앞서게 되었다. 선수들을 포함해 성균관대를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의 환호가 터지던 순간이다.

성균관대의 우승을 위해 목동야구장에 나타난 성균관대 응원단 <킹고응원단>. 북과 각종 응원도구를 동반한 킹고응원단의 열띤 응원에 프로야구 못지않은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우승 세리머니로
성균관대 운동부의 공통적인
승리 세리머니
'킹고' 를 하고 있다.
주장 노유성의 지휘 아래
킹고를 하고 있는 그들.



시상식이 끝난 뒤 이연수 감독을 행가래 치는
성균관대 선수들의 모습이다. 휴가 한 달을 약속받고
좋아하던 성균관대 선수들이지만
과연 한 달 휴가 약속이 지켜졌을지는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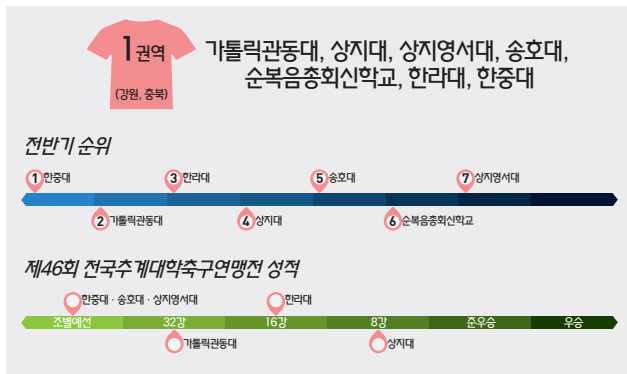


2015 카페베네 U리그 하반기 PREVIEW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었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는 대학축구 선수들의 열정까지 막을 순 없었다. 2015 카페베네 U리그 상반기를 무사히 치른 선수들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해 한·일 정기전(이하 덴소컵), 2015 하나은행 FA컵,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이하 추계연맹전),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진 1·2학년 대회까지 갖가지 대회를 통해 저마다의 기량을 맘껏 뽐냈다. 이제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든 2015 카페베네 U리그. 더욱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상되는 하반기의 판도를 권역별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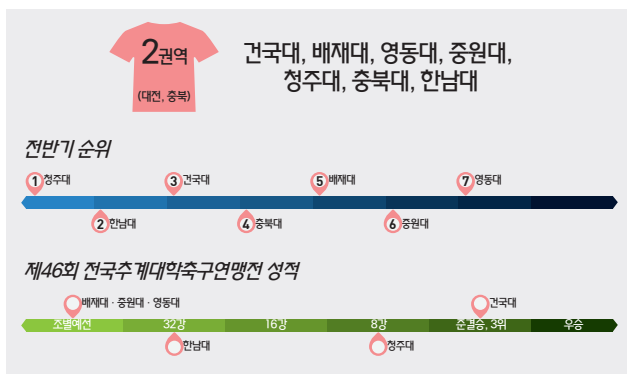
(학교명은 모두 가나다순으로 명시)

1권역(강원, 충북) 한중대의 반란, 혼전 속의 선두권 쟁탈전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한라대의 선전이 예상됐던 1권역에 한중대가 복병으로 치고 올라왔다. 한중대는 비교적 적은 득점과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실속 있는 승점 쌓기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가톨릭관동대는 최소 실점(8경기 8실점)의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추계연맹전 8강에 올랐던 상지대는 폭발적인 공격력에 비해 4위라는 다소 아쉬운 순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 언제든 선두권을 위협할 상지대와 한라대가 있어 1권역의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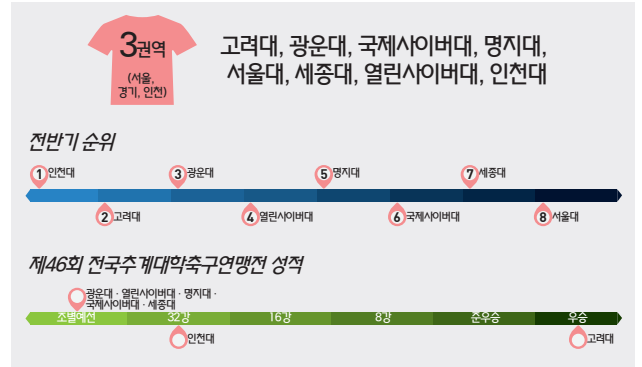
2권역(대전, 충북) 청주대의 독보적인 행진, 한남대·건국대와 3강 체제



2권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연 청주대의 독보적인 선두 질주이다. 청주대는 이번 추계연맹전에서 8강까지 오른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반기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시즌 권역 1위를 달성했던 한남대도 잔물 수비를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시즌 중 감독 교체의 내용을 겪었던 건국대도 추계연맹전 3위의 성적을 보아 하반기 선두권 경쟁에서도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 특히 건국대는 추계연맹전 8강에서 청주대의 연승행진에 제동을 걸며 준결승에 진출한 바, 오는 9월 18일에 있을 건국대와 청주대의 '리벤지 매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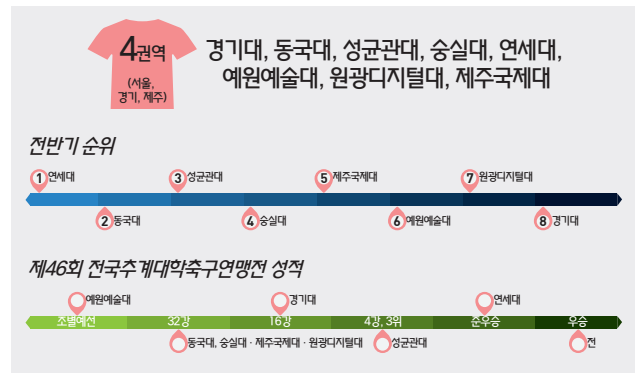
3권역(서울, 경기, 인천) 주춤했던 디펜딩 챔피언 광운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인천대

디펜딩 챔피언 광운대와 대학축구 강호 고려대의 양강 체제가 예상됐던 3권역은 인천대의 비상(飛上)으로 반전을 일궜다. 인천대는 전반기에 25득점·2실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력으로 9경기 전승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김정



호(7경기 8골)와 연령별 대표팀을 오가며 맹활약한 이정빈이 있으니 인천대는 하반기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대의 독주 체제를 유일하게 저지할 수 있는 상대는 바로 고려대. 이번 추계연맹전에서 우승을 달성하며 기세가 오른 고려대와 인천대의 리그 승점 차는 4점으로, 9월 11일 인천대와 고려대의 한판 승부가 권역 우승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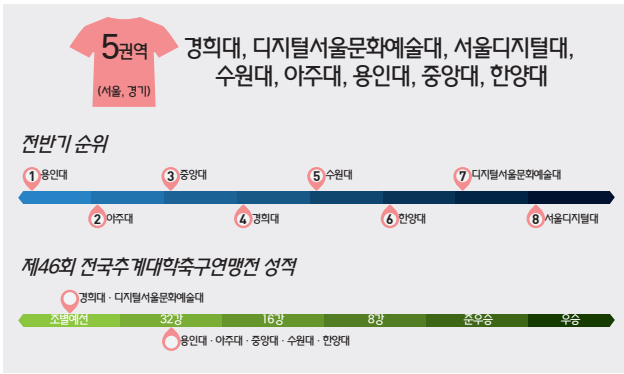
4권역(서울, 경기, 제주) 죽음의 조 4권역의 안개 속 순위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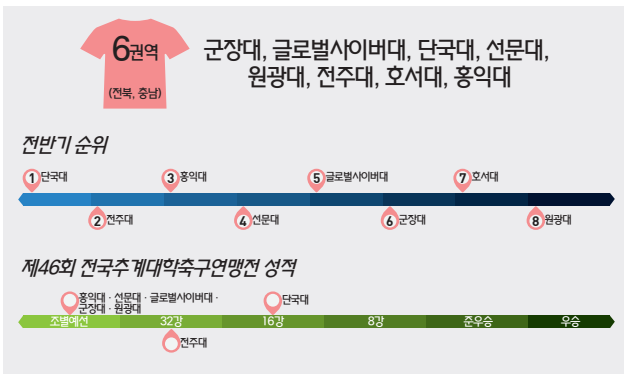
그야말로 혼전이다. 대학축구 강호들이 한데 모인 4권역은 전반기를 마무리한 현재 선두 연세대와 4위 숭실대와의 승점 차가 4점뿐이다. 지난해 부진했던 연세대는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신입생들이 맹활약하며 전력이 한층 보강됐으며 이번 추계연맹전에서는 준우승까지 달성하며 멋지게 재기했다. 하지만 1위 연세대는 2~4위 팀들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상황. 前 강원FC 감독이었던 김종갑 감독이 새로 부임한 동국대와 역시 새로 부임한 설기현 감독 체재 하 이번 추계연맹전 3위에 빛나는 성균관대는 언제든 선두 자리를 뺏을 준비가 되어 있다.

5권역(서울, 경기) 용인대·아주대의 2강 체제, 반동의 기회를 노리는 경희대의

역시나 수도권 강팀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5권역은 용인대·아주대가 예상대로 선전하고 있으며 경희대의 부진이 눈에 띈다. 용인대의 확고한 공격과 아주대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춘계연맹전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경희대가 뜻밖의 부진으로 4위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팀의 에이스 박인혁(現 프랑크푸르트 임대)이 이번 여름 독일 TSG 1899 호펜하임에 입단하며 전력의 큰 손실을 입은 상황. 이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는지에 따라 경희대의 하반기가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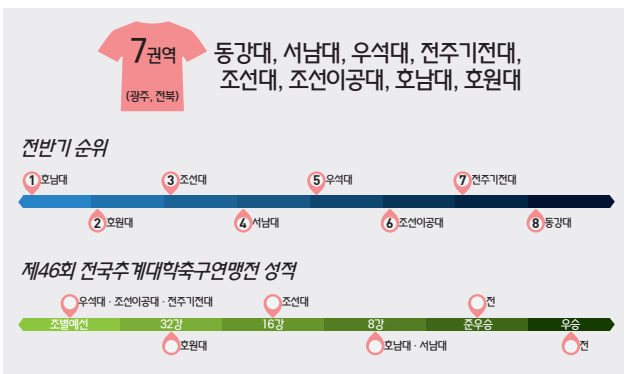


6권역(전북, 충남)
단국 · 전주 · 홍익 3파전, 그리고 김재소 감독의 선문대



6권역은 지난 시즌 준우승팀 단국대와 권역 1위였던 홍익대의 강세가 예상됐지만 전주대가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로 2위에 오르며 선두 싸움에 가세했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두를 질주 중인 단국대는 후반기 때도 쉽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다. 2위 홍익대는 올 여름 제11회 KBS N 1, 2학년대학축구대회 우승으로 기세가 오른 어린 선수들의 후반기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3파전 속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은메달의 주역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선문대 역시 상위권 싸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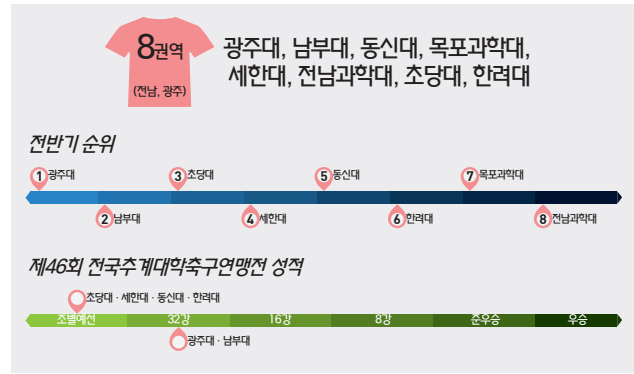
7권역(광주, 전북)
호남대의 굳건한 선두 체제, 치열해질 상위권 순위 싸움



우석대와 호남대 2파전이 예상됐던 7권역은 일찍이 호남대로 선두 체제가 굳어졌다. 우석대가 예상 밖의 고전으로 5위에 랭크된 상황. 호남 라이벌이 가라앉은 가운데 호남대는 10경기 무패행진으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패기를 앞세워 추계연맹전 8강까지 이른 호남대가 무패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한편 2, 3, 4위를 기록 중인 호원대, 조선대, 서남대는 모두 승점 17점 동률을 기록 중이기에 후반기 7권역의 순위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피 튀기는 전쟁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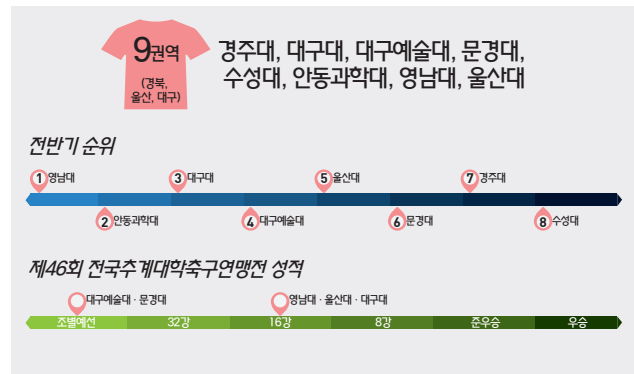
8권역(전남, 광주)
광주대 · 남부대의 무패 질주, 3위를 차지할 한 팀은?

호남권역의 절대 강자 광주대가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남부대 역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중. 3년 연속 권역리그 무패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대가 후반기에 '4년 연속' 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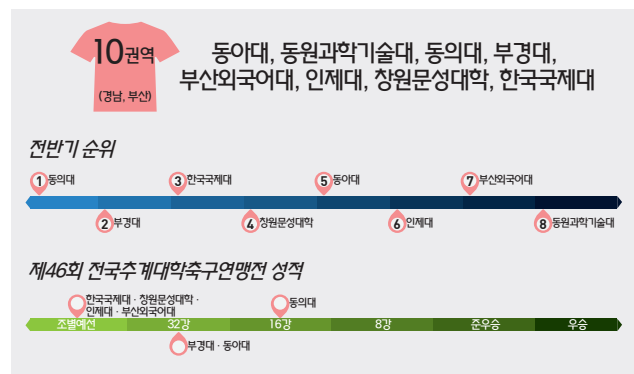
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3위 자리를 놓고 초당대, 세한대, 동신대가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세 학교는 각각 4위(18점), 5위(16점), 6위(13점)로 승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한대와 동신대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9권역(경북, 울산, 대구)
'영남셀로나' 영남대의 독주, 안동과학대의 파란은 계속될 것인가



9권역의 절대 강자 영남대는 올 시즌에도 무섭게 질주 중이다. 2013년 4월 이후 리그에서 패배가 없었던 영남대는 올 시즌 전반기에도 7승 2무의 성적을 기록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위 안동과학대도 해결사 김영도의 활약에 힘입어 안동과학대는 3위 대구와의 승점 4점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외 선수들의 활약도가 안동과학대의 후반기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대구대 역시 이강욱(10경기 9득점)이 해결사 노릇을 하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4위 대구예술대와 5위 울산대가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10권역(경남, 부산)
동의대의 질주, 동아대의 아쉬운 부진



줄곧 1위를 지켜왔던 동의대가 후반기에도 선두 수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대는 4골만 내주는 내실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점 22점 달성, 2위인 부경대와 승점 5점 차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전통 강호 동아대는 해체 논란 이후 팀을 재정비하여 절치부심했지만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하며 왕중왕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10권역은 2위 부경대와 4위 창원문성대학 간의 승점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 가운데 2, 3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농구 POWER 랭킹!

(방학 리뷰 & 하반기 프리뷰)

7~8월의 베스트 팀

단국대



단국대가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방학을 장식했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팀의 주축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 전반기 팀의 유일무이한 센터로 활약했던 홍순규가 부상으로 인해 MBC배에 나서지 못하게 됐을 때만 해도 단국대가 본선에 진출하리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단국대는 중앙대를 상대로 4쿼터에만 26점을 몰아치는 뒷심을 보이며 승리, 골득실에서 앞서며 본선진출에 성공한다. 중앙대가 전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다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리바운드 열세가 뚜렷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단국대는 이 경기 하나로 자신감과 본선진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단국대의 반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MBC배 이후 연이어 치러진 종별선수권 대회에서는 동국대를 13점 차로 꺾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홍순규가 24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전태영이 4쿼터에만 16득점을 몰아치는 등 총 30득점을 올려 승리를 견인했다. MBC배가 단지 요행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결승에서 건국대에 꺾이며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여기에 단국대는 하반기 하도현이 가세한다. 만일 홍순규-하도현의 더블 포스트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대학리그에는 고려대, 연세대를 제치고는 단국대보다 높이에 우위를 가지는 팀이 없는 상황. 더군다나 단국대는 하반기 경기가 남아있는 동국대, 중앙대를 모두 꺾었다. 단국대가 하반기 중위권 다름의 강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큰 이유다.

7~8월의 워스트 팀

동국대



동국대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방학이었다. MBC배에서 건국대와 연장접전 끝에 패하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도 그렇다. 동국대는 전반기까지 15점을 앞섰지만 외곽에서 난조 끝에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내줬고 끝내 역전패했다. 종별선수권대회 역시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단국대에 패하며 생각지 못한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 또다시 건국대를 상대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프로-아마 최강전에 출전하는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참가하며 내심 우승까지 노렸을 동국대로는 부족한 결과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털고 다시 리그에 집중할 때다. 게다가 동국대를 꺾은 단국대·건국대와와의 리그 경기가 모두 남아있기에, 설욕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7~8월의 경기



고려대 vs 고양 오리온스

고려대가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프로-아마 최강전 2연패에 실패했다. '프로최강' 모비스를 꺾었지만 오리온스의 벽은 그보다 높았다. 이종현은 2년 선배인 이승현에게 판정패하며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시작부터 완전히 오리온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오리온스는 모든 선수가 고무 득점에 가담한 반면 고려대는 선수들이 계속된 경기로 체력적인 저하를 보이며 고려대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1쿼터에만 오리온스가 25-12, 더블스코어로 앞서갔다. 이어 2쿼터 이승현의 외곽 슈팅이 연속으로 림을 가르며 오리온스는 손쉽게 리드를 유지했다. 고려대는 강상재만이 분투했지만 이종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내·외곽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고려대는 프로-아마 최강전 들어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던 전현우를 기용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고려대는 한 쿼터도 리드를 가져오지 못했고 점점 점수가 벌어지며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아마최강'이라 불리는 고려대에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특히 이번 대회 들어 대학선수들은 기량에서는 프로선수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도 체력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프로와의 격차를 실감해야 했기에 고려대 말고 대학선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반기 랭킹

1	고려대	11승	-
2	경희대	9승 1패	-
3	연세대	9승 2패	-
4	동국대	7승 3패	-
5	중앙대	6승 3패	-
6	건국대	6승 4패	-
7	단국대	4승 6패	-
8	한양대	3승 7패	-
9	명지대	2승 7패	-
10	상명대	1승 8패	-
11	조선대	1승 9패	-
12	성균관대	9패	-

7~8월의 핫 플레이어

허훈



MBC배 결승전에서 '앵글브레이커'로 유명세를 탄 데다 프로-아마최강전에서도 프로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단숨에 대학농구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역시 농구대통령의 아들임은 속일 수 없는 것일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상명대학교 안정훈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말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괴테의 말처럼 먼 길을 돌아 복귀한 선수가 있다. 바로 상명대학교의 안정훈. 경희대에서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공익근무로 군복무를 마치고 상명대로 편입한 그는 1,056일 만에 대학농구리그로 복귀했다.

경산에서 맞이한 1,056일 만의 복귀전

메르스로 미뤄진 대학농구리그. 때문에 안정훈은 제31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대회 예선에서 건국대와의 경기로 1,056일 만의 복귀전을 가졌다. 어떤 느낌이었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던 대로만 하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기 시작 전까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조금씩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라며 당시의 기분을 설명했다. 첫 경기 성적을 보고 어땠다는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아쉬웠어요. 경기 중엔 몰랐는데 전반전에 21득점을 했더라고요. 3쿼터에 4반칙으로 후반에는 4점밖에 넣지 못해서 흐름이 끊긴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더 할 수 있던 것을 못해서 역전된 것 같아요. 첫 경기였고 조금 활약을 했는데 팀이 패배해서 아쉬움이 정말 컸어요.”라 답하며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어느 곳이든 선수가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2부 리그에도 안정훈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선수가 있다. MBC배 대학농구대회 2부 리그에서 세종대를 준우승에 안착시킨 이경민 선수다. 이 선수도 상명대에서 세종대로 편입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경험자로서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농구할 곳을 찾아 편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벌이라는 것을 쉽게 놓는 것은 어렵죠. 특히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선 대학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하지만 대학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봐야 해요. 프로, 국가대표, 지도자 등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부 리그, 2부 리그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공간. 즉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않을까 생각해요.”라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선수에게도 또 대학에게도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편입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대학농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안정훈. 2015 대학농구리그 후반기를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돌아가는 길을 걷는 동안 누군가는 그에게 실패한 농구선수라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복귀에 성공했다. 자신의 장점인 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더 보완한다면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장차 한국농구의 활력소로 성장해 선수들에게 또 우리 청춘에게 순간의 실패란 경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란다.

글/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단)

사진/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단)



2015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그 왕관의 주인공은?

한여름 밤의 꿈같았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학생들은 다가올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2015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역시 여느 대학생들의 개강과 함께 9월 1일 재개된다. 지난 6월까지 전국대학배구리그는 새롭게 도입된 인터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두 달의 방학 동안 각 대학은 2015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대회와 해남대회를 통해 여러 팀의 분위기를 다시금 파악했다. 그렇다면 리그 잔여 12개의 경기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는 팀은 어느 곳일까.

* * *

지난 예선리그를 통해 대략적인 4강권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 1위 인하대부터 경기대, 흥익대, 성균관대 등의 전통강호 대학들이 이름을 올렸고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다크호스 중부대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하위권의 한양대와 명지대, 경남과기대 역시 방학 중의 대회에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승점 차를 좁혀내기엔 남아 있는 인터리그가 너무나 짧다. 하지만 보다 강해진 하위권의 활약에 따라 4강권 내의 순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그 1위 인하대는 지난 2015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 무실세트 6연승의 막강한 저력을 보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대학배구의 독보적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하반기 리그 흥익대전을 제외하고 명지대, 한양대 등 무난한 상대와의 경기들이 남아 있는 인하대 이기에 본인의 것들에만 충실한다면 손쉽게 1위 자리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위 경기대는 최근 심각한 하락세에 빠져있다.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도 일찌감치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전국체전 경기도 선발전에서도 경희대에게 그 출전 티켓을 내어주고 말았다. 경기대는 하반기 성균관대, 경남과기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비교적 까다로운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공격의 황경민과 리시브의 정동근이 함께 코트를 밟는다면 반전의 계기는 충분히 있다.



경기대와 승점은 같지만 3패로 리그 3위에 자리 잡고 있는 흥익대는 김재권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는 조금 지친 듯한 기색을 보이며 눈앞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이어지는 해남대회에서는 예선에서만 무실세트 3연승으로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김준영, 김재권의 좌우쌍포에 신예 한성정이 가세한 공격라인이 강점인 흥익대. 하반기 리시브에서만 보다 안정을 찾는다면 리그 1위로 치고 올라갈 힘

을 가진 팀이다. 4위 성균관대는 승점 1점 차로 5위 중부대에게 바짝 쫓기고 있는 중이다. 전국대학배구 대회에서만 해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성균관대지만 해남대회에서는 우승후보로 꼽힐 만큼 선전하고 있다. 주전 세터 황택의의 부재에도 이시우, 정수용이 완벽히 살아나며 본연의 팀컬러를 되찾은 것. 성균관대 역시 후반기 4강권 밖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홍익대, 경기대와의 맞대결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대는 4, 5위를 오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팀이다. 4위 성균관대와 단 1점 차의 승점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신예 신장호가 특급 루키로 성장하며 지원우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중부대 역시 리시브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20점대에서 지원우, 신장호가 본인들에게 올라온 공을 확실히 득점으로 이어준다면 그 허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대학배구리그 다크호스로

꼽혀온 중부대가 이번 시즌에도 일을 낼 수 있을지 계속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방학 중 치러진 대회를 통해 리그 하위권 팀들의 180도 변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명지대는 한정훈, 기동균을 앞세워 6년 만에 대회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양대와 경남과기대 역시 각각의 에이스를 중심으로 수준급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세 학교 모두 조직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에도 상위 팀과의 승점 차를 뒤집기엔 잔여 경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4강권 진입을 놓고 혈투를 벌이는 상위 팀과의 승부를 어렵게 끌고 간다면 순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대학배구리그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다. 상위 팀 역시 각 팀 간 승점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하위 팀과의 경기에서 승점과 승패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4강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리그 마감 후 정해진 4개 팀 간의 홈 앤 어웨이를 통해 다시 결승에 진출할 두 팀이 결정되기 때문. 3월부터 시작된 이 긴 여정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달려 나갈 팀은 어느 곳일지 주목하길 바란다.

글 · 사진/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한가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탁구”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 우승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코리아’ 이후로 다시 한 번 청년들에게 탁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리단길의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된 ‘서울 핑퐁 펍’은 주말이면 많은 청년들로 붐빈다.

붉은 조명 아래 탁구대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기는 탁구는 생활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청춘들이 열광하는 탁구의 역사와 숨겨진 비밀과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 탁구의 역사

탁구의 역사나 기원은 정확하게 전해져 오는 게 없다. 다만 남아프리카, 인도 등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테니스 변형시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한국에 탁구가 도입된 것은 1924년 경성일일 신문사가 제1회 탁구 경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보급되었다.



🎯 탁구공의 비밀

1898년 영국의 James Gibbi이 고안했는데, 이를 취급하던 운동구 상점 함레 상회에서 공을 칠 때 나는 핑퐁 소리(그 당시 사용됐던 탁구대와 가죽으로 된 배트에 볼이 닿는 소리를 가지고 모방한 것임)를 따서 핑퐁이라는 상호를 붙였다고 한다.

(스포츠 백과, 2008., 국민생활체육회)

탁구공은 흰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지름 4cm, 무게는 약 2.7g의 매우 가볍고 작은 공이다. 탁구공에는 별이 그려져있는데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비싸고 좋은 공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별 2개인 2성 탁구공은 연습용 공으로 3성 탁구공은 시합용 공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 탁구 운동효과

탁구는 공의 움직임이 빠른 운동이므로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크다. 또한 팔, 허리, 다리까지 전신 근육을 사용하므로 짧은 시간에 탁월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가볍고 작은 공은 여러 방향으로 튀고 회전율이 높아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치매에 방과 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며 부상 위험도 적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경력 13년’ 탁구 동호인 회장이 말하는 탁구의 매력

탁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가 많은 공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분들이 동호회에 가입한 후 2달 정도하다 난 안되겠다며 포기하는데 딱 달만 더 해보면 익숙해지고 그때부터는 탁구가 재밌어질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3달만 인내심을 가지고 탁구를 배운다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탁구다. 기본기를 익히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일취월장하는 탁구 실력과 함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탁 톱’ 하는 소리를 들으며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색다른 탁구를 즐기고 쉽다면 비어퐁]

얼마 전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온 필자는 비어퐁의 매력에 빠졌다.

비어퐁(beer pong)이란, 탁구대나 테이블 양쪽에 음료가 담긴 맥주 잔에 탁구공을 던져 공이 빠진 맥주 잔을 상대방이 마시게 하는 게임이다.

이게 재밌을까라는 고민도 잠시 비어퐁 매력에 빠져 여행 내내 밤낮없이 즐겼다. 라오스에서 즐겼던 그 느낌을 이태원 펍에 가면 쉽게 즐길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꼭 해보길 추천한다!

글/최보라(STN)
사진/고려대 탁구사랑회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성균관대학교 기우회 묘수

19줄·19칸으로 이루어진 바둑판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수많은 대국 중에 똑같은 과정으로 이뤄지는 대국은 하나도 없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세에 몰리다 한 번의 선택이 역전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바둑은 인생과 닮은 부분이 많다. 이번 동아리 열전에서 소개할 성균관대학교 기우회(바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임) ‘묘수’는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의 매력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가진 동아리로 유명하다.



‘8전 9기’ 아홉 번 만의 첫 우승

성균기우회는 지난 6월 열린 ‘제9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 결승전에서 연세대를 꺾고 우승했다. 준우승만 세 번을 기록하다 아홉 번 만에 거둔 감격적인 우승이었다. 대학동문전만큼 다른 대회와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 승자를 가린다. 1:1 대국이 아닌 OB와 YB가 서로 팀을 이뤄 릴레이와 3:3 대국으로 승부를 가르는 방식이다. 위로는 60대인 71학번부터 아래로는 20대인 12학번까지 하나가 되어 성균관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 동아리 회장인 구제성(영어영문학과 13학번)은 “평소에는 재학생들만 개인전으로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렇게 선배들과 호흡을 맞춰 바둑을 둘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대회에서 상대팀이 시간이 부족해 이길 수 있었지만 불리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했다. 실력으로 이긴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출전한 멤버들을 대신해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성균기우회

성균기우회가 동아리의 직접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1976년부터였다.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다. 현재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 회장은 “동아리에 이름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 된다. 주로 활동을 하는 학우들은 15명 정도인데, 동아리방에 자주 오는 사람들과 대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성균기우회의 장점으로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를 들었다. “아무래도 동아리 중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MT를 갔을 때도 96학번 선배님들도 오시고 평소에는 06학번부터 15학번까지 바둑과 운동 등 여러 가지를 즐긴다.”고 말했다. OB 선배들과 연구생 출신 재학생을 위주로 출전해 우승한 대학동문전 말고도 일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둑 대회 성적도 뛰어나다. 2014 대학바둑연맹 단체전 유급부(인터넷 바둑

인 타이젠 1급~7급 대상) 3위, 2014 전국 대학바둑 패왕전 유급부 우승과 3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일주일마다 모임을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한국기원에서 프로 기사 사범이 와서 지도대국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데 힘쓰는 성균기우회였다.

바둑, 한 번 빠지면 놓칠 수 없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바둑이라 하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바둑을 익히기 위해서 어려운 바둑용어를 알아야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구 회장도 이를 부인하진 않았다. “같이 들어온 동아리 동기 중에 지금은 저만 남아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꾸준히 바둑을 두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대학에 와서 바둑 동아리에 처음 들게 되었고 동아리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친숙함은 바둑에 재미를 붙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지난해 말 웹툰을 원작으로



욱 그렇다. 아슬아슬하게 진 판이면 돌을 잡을 힘이 없다.”고 바둑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종목이라고 말했다.

바둑의 세상은 현실보다 냉정하다

〈미생〉에서 장그래를 가르치는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바둑에 그냥이란 건 없어. ‘그 수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해. 그걸 의도라고 하지.” 바둑의 세상은 철저히 운이 아닌 의도가 쌓여 만



들어진다는 말이다. 구 회장도 “바둑의 세상은 현실보다 냉정하다고 생각한다. 운이란 게 없다. 이런 면을 삶에 적용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 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 회장이 좋아하는 바둑 격언 또한 삶의 교훈이 담겨 있다. “제가 좋아하는 이창호 9단이 쓴 책 이름 중에 〈부득탐승〉이라는 책이 있다. ‘승리에 욕심내게 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인데 자세히 말하면 바둑을 두다 보면 이겼다 하는 순간에도 한 수를 잘못 두면 경기에 질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아생연후살타’라는 격언도 있는데 ‘남을 공격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살피라’는 뜻으로 마냥 이상적으로만 인생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격언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한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이 바둑연구생 출신으로 사회초년생이 된 장그래였기에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다. 이는 대중들이 바둑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우회도 ‘미생 효과’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학기 초에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면서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지’하고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스로 거의 60명 정도가 관심이 있다고 찾아왔다. 여성 학우들의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바둑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점도 언급했다.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를 하게 되는데, 복기란 승자와 패자가 자신들이 두었던 대국을 되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정이지 않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복기를 하면서 진 사람이 실력이 늘게 된다. 또한 바둑을 수담(手談)이라고도 하는데 바둑을 두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데 고민하고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바둑을 두는 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나는 느낌이 날 만큼 뇌에 쓰는 칼로리가 많은 것 같다. 수세에 밀린 경기면 더



* * *

국수(國手)라고 불리는 조훈현 9단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존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있다. 어디에 있던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는 한, 혹은 판을 모두 채우지 않는 한, 인생이라는 바둑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조 국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다독였다. 구 회장도 바둑을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의 말을 전했다. 미래에 바라는 성공기우회의 모습으로 “가장 간단하게는 강한 동아리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초보자에게 따뜻하고 성군인이라면 누구든 기우회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는 편안한 동아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군기우회 말고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 대학에서 바둑동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과 함께 바둑의 매력을 알아가는 건 어떨까. 기우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글/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나의 '롤 모델',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포츠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에 단골처럼 나오는 질문이 있다.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보통 선수들이 대답하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운동 분야의 몇몇 유능한 선수들로 집약된다. 뛰어난 플레이를 구사하는 이 '롤 모델'들은 후배들과 타 선수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는 아득히 먼 산과 같은 존재다.



<http://www.tvcommercialsspots.com> 출처 (음료 '게토레이' 광고 속 마이클 조던)

이상화(理想化 ; Idealization) 대상으로서의 '롤 모델'

'하늘 아래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말. 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갖거나 이상화(理想化)를 하곤 한다. 물론 '롤 모델'이 되는 대상들이 실제로 뛰어난 실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유능한 자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의 '롤 모델'은 그 개인과의 친분이 없거나 친분을 가질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롤 모델'의 보이는 이미지만을 가지고 열성적인 추종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치 롤 모델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이종(異種)의 생명체인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에게 열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통의 경우 '이상화'가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소거되기도 하지만, '이상화' 작업 자체는 인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일어나며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이상화'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그 대상에 투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영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웅을 위하여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돌(idols), 즉 우상과도 같은 '스타'가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한다.

왜 우리는 롤 모델을 만들어 냅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꼭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부모'라는 롤 모델을 갖고 있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에 주목한다. 점차 아이는 자신의 행동 중 울음이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자각한다. 울음을 통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약간의 행동을 통해 타인을 조종할 수도 있는 '나'. 그러한 자신을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조금씩 자율성을 획득하고 주위 사람들도 아이의 수족이 되어주던 과거와는 점점 달라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전능감 상실을 경험한다. 이후 아이는 조금씩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하다. 그러한 아이에게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부모는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 전능한 존재로 느껴지는 첫 번째 타인인 것이다.

부모를 이상화한 후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 함으로써 자신이 과거에 획득했던 전능감을 간접적으로 재경험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배우, 운동선수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투나 복장, 사고방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이상화시킨 사람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 그를 간접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잃어버린 전능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롤 모델의 존재는 행복과 도전 의식만을 가져다주나

분야를 망라하고 자신이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기가 주위 사람들을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여러 도구들을 습득하듯이, 거울과 같은 반영이 되어줄 '모방'의 대상은 한 사람이 발전하는 일에 큰 목표와 도전으로 작용한다. 특히나 뛰어난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태도이다.

'롤 모델'을 갖는 것이 개인의 실력이 성장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제안하건대 스포츠 선수라면 '롤 모델'로 자기 종목의 현역 선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피차 언급했듯이 사람은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다. 또한 사람은 이상화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픈 강한 동기를 가진다. 이상화된 '롤 모델'의 속성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삶의 만족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그 개인에게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롤 모델'을 경기장 위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롤 모델'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는 이상화된 대상을 파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롤 모델을 건전하게 사랑하라



<https://tentatv.wordpress.com> 출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따라서 이를 이상화를 통한 동일시로 채우고자 하고 끊임없이 이상화할 대상을 갈구한다. 이렇어도 롤 모델이 인간에게 재앙이 아닌 이유는 이상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전할 욕심을 끊임없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과도한 이상화를 통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자신의 정열을 과하게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도한 이상화는 과도한 실망감 또한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상화했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역으로 그 대상을 과하게 깎아 내리게 되는 현상 또한 일어난다. 심하게 깎아 내려야만 심리적으로 이상화의 자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이 공간에 새로운 이상화의 대상이 제대로 자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이상화를 통해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을 찾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고, 이상화된 대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실망감보다는 그 대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제대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롤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큰 행복감을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고, 이상화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은 <누다심의 심리학 아카데미>(www.nudasim.com) 사이트의 '생활 속의 심리학' 중 '왜 그에게 열광하는가'라는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스포츠의 순수함과 열정을 담다’

SPOTV 김명정 캐스터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은 누구나 한 번쯤 스포츠 미디어인을 꿈꾸곤 한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감동을 있는 그대로 혹은 더 배가해서 전달해야만 하는 스포츠 미디어. 하지만 막상 이 꿈을 정하고 나면 기대감보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분들의 작은 안내판이 되고자 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열정을 사랑하는 SPOTV 김명정 캐스터와의 유쾌한 만남을 준비하였다.

* * *

Q. 반갑습니다. 김명정 캐스터님 대학스포츠 팬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POTV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NBA, MLB, K리그를 중계하는 김명정 캐스터라고 합니다. 평소 중계에서만 만나 뵈다가 이렇게 인터뷰로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스포츠 캐스터, 그 길로 첫걸음을 내딛다

Q.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님께서 스포츠 캐스터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하지만 여러 시험에서 고배도 많이 마셨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워닝 일레븐이라는 게임으로 아나운싱을 하는 영상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후 현재 SBS 스포츠 이동근 선배의 제안으로 프리랜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서 더빙도 하고, 11/12시즌 챔피언스 리그 중계를 하게 되었어요. 스포츠캐스터를 하다 보니 이 길에 흥미가 붙었죠. 어릴 적부터 스포츠는 좋아했어요. 특히 위성으



로 중계되는 라리가라든지, NBA, 국내 프로스포츠를 즐겨 봤어요. 어렸을 때 관심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잊고 있다가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나서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찾아보고 하곤 했죠.

부단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운도 따라온다

Q. 스포츠 캐스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경기를 많이 봤어요. 경기를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선수 개인의 움직임, 특징을 보게 됐고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종목만의 재미를 자신이 찾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알아야지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어요. 아나운서로서 기본적인 발음이라든지 장단음을 지키는 것은 필수고요.

Q. 입사하신 지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캐스터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는 게 힘들죠. (그렇다면 캐스터님은 그 기회를 잡으신 축에 속하시는 거는 아닌지?) 기회를 잡았다기보다는 제가 중계했던 종목들이 각 종목에서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진 콘텐츠였어요. 챔피언스리그와 NBA, 테니스 US오픈이 그렇죠. 이러한 콘텐츠를 중계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SPOTV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적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조금은 힘든 부분이지요.

Q. 돌이켜보면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하시고 오전에 NBA 중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또한 체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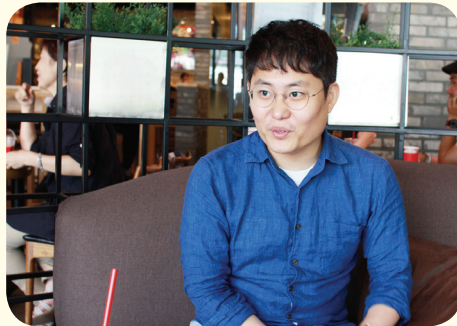
비시즌 기간에는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해요. 체력관리는 선수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먹는 거 잘 먹고 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챔피언스리그와 NBA라는 두 집 살림을 했지만 다행히도 NBA 중계가 많아질 때 챔피언스리그 중계가 줄어들었어요. 또 경기 시작 전에는 체력을 아끼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경기 분위기에 흐름을 타다 보면 체력관리가 안 돼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Q. 이렇게 여러 경기를 하루에 다 중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도 당일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자료를 준비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도 확인하죠. 만일 그 날 2경기를 중계하면 먼저 뒷 경기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앞 경기 최신정보를 찾고 방송에 들어가요. 그 사이에 뒷 경기의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요.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하죠. 또 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나 지난번에 얘기 해주지 못한 부분은 미리 따로 표시해뒀다가 꼭 전달하려고 해요.

Q. 스포츠 캐스터분들이 중계하시는 걸 보면 자신만의 문구가 하나씩 있는데 혹시 그런 코멘트는 따로 준비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김명정 캐스터는 NBA 중계 시 '쓰~리 포인트!', '깨끗합니다!' 등의 멘트를 활용한다.)

미국 NBA 진행자들 경우 'YES!', 'BANG!' 이러한 것들을 쓰는데 저도 한 번씩 방송에서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도 시즌 중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남발하면 시청자들에게 저 것만 하는 사람으로 각인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웃음) 저만의 멘트는 현장감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요. '쓰~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내 아나운서인 허지욱 씨가 대학교 선배인데 그 선배가 장내 아나운서 할 때의 멘트에 영감을 받아서 한 부분이에요. 원래 멘트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필요한 문구 같은 것은 만드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멘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캐스터와 해설위원의 호흡은 결국 노력의 산물

Q. 캐스터는 항상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존재이며 해설위원을 뒷받침하는 캐스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터님께서 해설위원과의 호흡을 어떤 식으로 맞추시는지?

캐스터는 항상 해설위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해설위원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해요. 결국은 스포츠 중계이기 때문에 그 해설위원의 철학과 경기를 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항상 해설위원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건 있으신지?) 미리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고 함께 경기를 보면서 그 해설위원과 보는 눈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사전 준비보다는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다른 활동을 같이 해보기도 해요.

꿈, 그 길로 가는 과정

Q.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어떤 캐스터가 되고 싶으시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캐스터로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냥 그 종목 하면 사람들이 여러 명의 캐스터 분들을 떠올릴 텐데, 그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점이에요. 온전히 스포츠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꿈을 갖고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Q. 이 코너의 이름은 '멘토를 만나다'입니다. 스포츠 미디어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산업에 종사를 하려는 분들에게, 스포츠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과 가장 이상적인 것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싶어요. 또 그 준비를 마친 후에는 그 안에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지금 이 산업은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만큼 많은 풍파를 겪었고 그만큼 더 단단해졌어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그 특징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저만 해도 6, 7년 사이에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하고 몇 안 되는 분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대중에게 알려진 대다수 아나운서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예요.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과정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스포츠는 대중과 호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포츠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대중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은 없어요.

두 학교 간의 치열한 명승부

매년 10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두 학교 간의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진다. 일명 '고·연전(高延戰)' 또는 연·고(延高戰)이라고 불리는 정기전은 도대체 어떤 명칭이 맞는 걸까? 매 년 대회를 주최하는 학교가 정식 명칭 뒤에 오니 매번 바뀐다는 게 맞다. 지난해는 고려대에서 주최했으므로 대회의 정식 명칭은 '2014 정기 연고전'이었다. 올해는 연세대에서 주최하므로 '2015 정기 고연전'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열리는 '안암골 호랑이'고려대학교와 '신촌골 독수리'연세대학의 '2014 정기 연고전'의 레전드 매치를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재미와 감동을 느껴보자.



정기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당연 농구다. 역대 정기전 20전 20승 4무 19패로 연세대가 앞서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세대는 고려대에게 연거푸 패했으며 2014시즌 농구리그,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MBC배 전국 대학농구 대회 총 7번의 경기에서 고려대와 맞붙어 1승밖에 거두지 못 했다.

명실상부 농구의 명가들인 만큼 양 팀의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하게 진행됐다.

1쿼터 초반, 고려대 문성곤의 3점슛을 시작으로 고려대가 앞서나갔다. 하지만 1쿼터 중후반 동점 상황, 1쿼터 종료 직전, 연세대 허웅에 2점 미들슛을 성공시키며 연세대가 앞서나갔다.

연세대의 리드는 2쿼터에도 계속됐다. 고려대가 문성곤의 3점슛으로 1점 차로 따라붙었지만 연세대는 허웅의 3점슛과 김준일의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26-31로 2쿼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반 들어 고려대 이승현이 골밑을 장악하며 3점슛과 미들슛을 성공시켜 연세대와의 점수 차를 벌렸다. 3쿼터 종료 1분을 남기고 연세대 김준일의 점프슛, 허훈의 레이업슛 성공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종료 직전 고려대 이종현의 앨리움 덩크로 연세대에 2점 차 앞서가며 3쿼터를 마무리했다.

고려대는 이승현의 2점 슛으로 4쿼터를 앞서나가기 시작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에 연세대도 반격에 나섰다. 연세대는 허웅의 3점 슛으로 48-49로 고려대에 맞섰지만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성공시킨 김지후의 3점 슛으로 승부는 고려대로 기울어졌다. 고려대는 탄탄한 수비로 연세대의 역전을 막아내며 61-58, 치열한 접전 끝에 고려대의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201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오리온스에 입단하게 된 이승현(고려대)은 4년간 정기전 전승을 달성하며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다.



차범근, 서정원, 홍명보, 차두리, 이천수, 박주영 이 선수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축구부 출신이다. 그 래서일까 역대 고연전(연고전)의 전적은 단연 고려대가 18승 11무 14패로 앞선다. 그러나 지난해 연 세대는 5년 만에 귀중한 승리를 거머쥐며 다시 한번 필승 의지를 다졌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양 팀의 경기가 시작됐고 전반 22분 고려대 이정훈의 발리슛을 시도했으나 옆 그물을 흔들며 아쉽게 놓쳤다.

이에 전반 33분 연세대 김현수가 골문 앞에서 날린 헤딩슛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5분 연세대 최준기가 반칙을 범해 고려대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고려대 키커 허용준이 골 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얻어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 연세대가 반격에 나서며 끊임없는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고 점수를 만회하려 했으나 고려 대의 골문을 열지는 못 했다.

후반 24분, 고려대 허용준이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감각적인 왼발슛으로 추가골을 만들어 냈다. 후반 중반쯤 접어들자, 연세대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한 채 0-2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9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5 정기 고연전, 올해도 뜨거운 함성과 열기 속에 명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글/최보라(STN)
사진/STN DB.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영국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 차 영국 출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새로운 선진 사례의 대상으로 영국을 선정, 8월 7일(금)부터 14일(금)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영국 대학스포츠의 현황 및 선진 체재를 수집했다.

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과 김민희 기획총괄팀장, 강민 사원 총 3인으로 구성된 이번 영국 출장은 영국대학스포츠연맹(BUCS) 방문 및 간담회로 그 문을 열었다. 런던 시내에 위치한 BUCS 사무처에서 진행된 간담 시간에서는 Karen Rothery(BUCS 연맹회장)와 Neil Rogers(국제프로그램팀장)를 주축으로 BUCS의 선수등록 및 회원대학 가입 절차, 주최·주관 스포츠클럽 운영 방식, 주요 운영 규정 등 전체적인 운영 방식과 영국 내 BUCS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후 BUCS에서 우수학교로 추천 받은 Imperial College London과 City University London 방문이 이어졌다. 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및 학생선수 운영 방식을 직접 관찰하며 영국 대학교내에 구비되어 있는 환경·제도적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은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던 해외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의 일환으로 거행됐으며, 영국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정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추후 한국 대학스포츠 개선안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



지난 8월 14일(금)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입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2016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이 발간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100여 개 대학(캠퍼스 기준)의 대학을 대상으로 취합된 이번 전형요강에서는 ▲필수용어 해설 ▲대학별 대입전형요강 일람표 ▲대학별 특별전형 입시요강 ▲수시모집 일반전형 입시요강이 실렸다. 특히 대학별 일람표와 각 입시요강은 학생 및 교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된 바, 올해 체육계 입시 정보에서 가장 큰 정보체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체육계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입시생들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입시 자료를 수집, 편집 과정을 거쳐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처럼 매해 발간된 전형요강은 해마다 바뀌는 우리나라 입시체제의 흐름에 따라 체육입시의 길라잡이로서의 기능을 하며 체육입시계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발간된 대입전형요강은 전국 1,000여 개의 고교에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usf.or.kr>)에서 파일로도 접할 수 있다.

이달의 KUSF 주요 일정 (2015년 9월)

2015 남·여 대학농구리그 하반기 리그	START 2015. 08. 21. ~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 하반기 리그	START 2015. 09. 01. ~
2015 카페베네 U리그 하반기 리그	START 2015. 09. 04. ~
2015 대학농구동아리U리그 서울권역	START 2015. 09. 20. ~

KUSF 대학스포츠
웹진 9월호

취재
후일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안정훈 선수 인터뷰 기사 제목입니다. 늦더라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에게 이 기사를 바칩니다!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커버스토리 인터뷰는 제가 지금까지의 인터뷰 중에 서울에서 가장 먼 전주에서 진행한 인터뷰였습니다. 서남근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멀리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씨름의 최강자인 서남근 선수를 커버스토리를 통해 조명할 수 있게 됐고 직접 씨름도 해보는 자리를 가져서 뜻 깊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인기·비인기, 어디든지 대학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다음 달 커버스토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9월호 스포트라이트에서 만나본 상명대 사격부는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엄마처럼 섬세하고 다정한 전정희 감독과 그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선수단은 그야말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착실히 훈련을 이어나가는 상명대 사격부, 앞으로 더더욱 성장해 대한민국 사격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이 팀을 주목해주세요!^^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